

# 여수시 전국 첫 모바일 시청 생중계

## HD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간부회의·행사 등 방송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HD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15일 "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IPTV, 스마트폰, PC, 태블릿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중계하는 '모바일 방송시스템'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모바일 생중계를 위해

시청 상황실과 회의실에 HD원격 시스템 카메라 등 28종의 장비를 설치했다. 또 모바일 미디어 방송장비 및 영상솔루션을 도입해 휴대기기만 있으면 인터넷 생중계는 물론 녹화방송 시청까지 가능한 HD방송시스템을 완비했다. 앞으로 여수시청 간부회의를 비롯

한 읍면 동장회의, 여수아카데미 등 대부분의 시청행사는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시청할 수 있다. 시청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및 여수시 모바일 홈페이지(m.yeosu.go.kr)로 접속 후 화면 우측 'LIVE/VOD'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시 시티투어버스

### 영·일·중국어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여수시는 외국인의 '시티투어' 이용 편의를 위해 10월까지 시티투어 버스(사진) 내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국어 안내시스템은 시티투어 버스 좌석에 설치된 별도 기기를 통해 언어를 선택하면 관광코스별 음성안내를 이어폰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장치다. 외국인들은 다국어 안내시스템을 통해 관광해설사의 코스별 주요 관광

지에 대한 설명과 여수의 볼거리, 먹거리 등 곧바로 청취할 수 있다. 여수 시티투어는 항일암과 역사유적 코스를 비롯해 야경과 여자만 해님이 코스 등 총 4개 코스로 운영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시티투어를 찾는 외국인 이용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시티투어 이용객은 매년 27.5% 가량 증가 추세에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광양 산사음악회 '성불사의 밤'

제2회 봉강면 산사음악회 '성불사의 밤'이 17일 오후 봉강면 성불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봉강면 청년회가 주관하고 광양시립국악단, 성불사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광양시립국악단의 '대정창의'(태평소, 타악) 연주를 시작으로 '배치기', '강강술래' 관현악 공연, 가수 김동규의 가요, 김유진·김현정의 관소리 '사랑가', 한영선의 '승무', 테너 이

동성의 '성불사의 밤'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광양시립국악단의 '아리랑 환상곡' 연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봉강면 특산물인 백운산 토종복분자 시음회 등 지역특산물 홍보와 관측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산사음악회는 시립국악단과 초청가수, 지역 음악 동호인들이 앙상블을 이뤄 멋진 무대를 연출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시 최악 전력난 극복 총력전

광양시가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전력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공공부문 건물에 대해서는 15% 이상 전력사용 감축과

냉방기 사용 자제(냉방온도 섭씨 28도 이상 준수),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공공기관 냉방기 및 공조기 가동 전면 중지, 사무기 기 냉온수기 자율적 단전 조치, 승강기 사용 최소화, 실내 조명 소등 조치 등 고강도 절전에 들어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곡성군 광복절 경축행사

곡성군이 15일 광복절 제68주년을 맞아 개최한 경축기념행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고 있다. 이어 대형 태극기를 애드벌룬을 이용해 68m 높이에 게양하는 행사도 열렸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구물구물~ 명주실 뽕고 뽕잎 주고

### 내일 순천 웰빙누에 축제...다채로운 체험행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농촌교육농장 중 하나인 낙안면 잠실주말농원에서 17일 제3회 순천 웰빙누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 웰빙누에 축제는 잠실주말농원 농촌교육농장, 순천잠실영농조합농업기술원과 순천시, (사)대한잠사회, (사)순천농산어촌관광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구물 구물 거리는 누에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으로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토대로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명주실 뽕기, 누에 고치 부채만들기, 누에고치 인형만들기, 실크 천연염색, 누에 뽕잎 주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또 뽕잎밥, 뽕잎 인절미, 뽕잎부침개, 뽕잎호떡, 뽕잎와플, 오디차, 오디막걸리 등 먹거리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5일 근무제와 수업제 시행과 더불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초·중·고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지금까지 13개 시군에 45개소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교육농장을 방문한 체험객은 6만5000여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테마형 농촌체험학습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촌교육농장으로는 여수시 송시마을체험장, 나주시 명하공방, 광양시 백운요, 담양군 다화립실물원, 구례군 쌍산재, 화순군 환원, 무안군 파도목장, 함평군 사슴이랑배양농원, 영광군 동구릉농장 등이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 전북

## 단신

### 전통 그릇에 담긴 의미찾기 2題

## 완주서 막사발 심포지엄

### 국내외 도예가 학술대회 만들기 체험 등 행사도

품질은 떨어지지만 서민의 혼이 깃든 막사발. 한국 100대 민족상징물 중 하나인 이 막사발을 만드는 도예가의 혼을 느끼고 도자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다. 세계막사발축제조직위원회와 완주군은 15일 막사발미술관(옛 삼례역)에서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을 개막했다. 4일간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도예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장작 가마 복원, 도예가 재능나눔 행사, 어린이 도공전, 막사발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특히 17일에는 소머리 등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가마 쟁임과 장작불을 지피는 행사가 펼쳐진다. 이 기간 주민과 어린이들이 만든 막사발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임정영 완주군수는 "우리 전통의 상징인 막사발을 한 단계 높은 예술적 가치로 승화하고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전주 한옥마을 식기展

### 막사발서 보시기까지 100종 350여점 전시

전주에서는 서민의 막사발에서 양반가의 보시기까지, 우리 음식문화의 가치를 음미하고 추억을 되새기는 '전주, 그리움의 식기전(展)'이 같은 날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단이 전시회는 보름간 전주 한옥마을 동학혁명기념관 1층에서 무료로 열린다. 고려·조선시대는 물론 여러 대에 걸쳐 내려온 식기류 100종, 350점이 전

주 음식의 역사성과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조리와 관련한 다양하고 독특한 식기류 그림, 서적 등도 곁들여진다. 전시회는 지난해 유네스코로 부터 음식 장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시가 전주 식기를 주제로 음식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음식 장의도시는 뛰어난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통음식을 보존·발달시켜온 곳으로, 세계적으로 전주시와 청주, 포파안, 스웨덴 오스터순드 등 4개 도시가 지정됐다. /전주=권신복음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 황산대첩 재연

15일 남원시와 운봉애향회가 주최한 황산대첩축제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개선하는 이성계 장군과 병사들의 행진이 재연되고 있다. 황산대첩은 고려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장군이 왜장 이지방도가 이끄는 왜군 2만명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전쟁으로, 매년 8월15일 전장이었던 운봉읍에서는 이 전쟁을 기려 황산대첩축제를 열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남원시 사매면 대을마을 노인 건강상담원제 호응. 전제 인구 중 노인인구가 40%가 넘는 남원시 사매면 대을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상담원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을마을 전체 인구는 16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7명(41.2%)에 달한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 노인인 이 마을을 위해 대을보건진료소는 지난 4월부터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노인들만 경로당에서 별도 관리하는 '건강상담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달 첫째·셋째 주 수요일 보건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찾아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노인 운동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폭염에 4개교 개학일 추가 연기 도내 개학 늦춘 학교 14곳으로 늘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개학을 늦추는 전북지역 학교가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중앙중(16일→19일), 김제청하중(19일→22일), 부안초(19일→26일), 백산중(19일→21일) 등 4개교가 개학을 미룬다고 추가가 통보해왔다. 지난 13일에는 호남제일고(14일→19일), 김제서고(19일→26일), 백산고(19일→21일), 남원서진여고(16일→19일), 서전주중(16일→20일), 덕일중(19일→21일), 순빛중(16일→21일), 아중중(14일→20일), 우아중(16

일→19일), 해성중(16일→19일) 등이 개학 연기를 알려졌다. 이로써 개학을 늦춘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도교육청은 폭염이 계속돼 정상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13일 학교장이 학교 실정과 기상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개학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특히 개학일을 변경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수단으로 이를 알리도록 했다. /전주=권신=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병해충 정밀 예찰 버벌구 등 다수 발견

고창군이 지난 13일부터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비래해충에 대해 정밀 예찰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 예찰단 18명은 이날 버벌구 정밀예찰 결과 지역 논에서 버벌구와 흑명나방 등을 상당수 발견해 해당 농업인에게 방제를 권장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버벌구는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생산량 감소는 물론 밀집도 현격히 떨어뜨린다"며 "흑명나방은 특히 어린벼 때 방제에 실패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벼 앞을 돌돌 감싸는 피해 없이 1~2개 보일 때 바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설

전북교육청은 15일 "예산 편성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연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초청해 전문가 특강, 주요사

업 재정투자 추세 분석, 내년 예산투자 방향 의견 수렴 등을 한다. 교육청은 아울러 이달까지 학부모와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 설문조사 작업을 병행,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 투자사업 대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주=권신=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부안군 폭염상황실 설치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부안군이 최근 폭염이 잇따르자 폭염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농작물 폭염 피해상황을 점검, 기상상황에 맞춰 농업인들에게 SMS문자전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물별 관리 요령도 홍보하고 있다. 또 가축의 경우 기온이 높아지면 식욕부진, 질병발생,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신선한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벽과 지붕에 물을 뿌려 복사열을 차단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과 축사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낮에는 되도록 농작업을 자제하고 무더위 완화 등을 이용,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yj0681@

## 시기동자치위 정읍천 외래종 식물 퇴치 요령

정읍시 시기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정읍시에 지역구를 둔 유성영 국회의원(민주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읍천 외래종 퇴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위는 이날 "정읍천생태하천조성공사로 정읍천에 키가 1m 이상 자

라는 유럽산 외래종 식물 톨레푸스구식재 식물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종 식물의 자생지까지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경위를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